



16일 오후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17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플레이오프 미디어데이에서 두산과 NC의 감독, 선수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NC의 모창민 선수, 임창민 선수, 김경문 감독, 두산의 김태형 감독, 유회관 선수, 양지 선수. /연합뉴스

“곰·공룡 5차전까지 치열하게 싸워 주길”

‘호랑이 군단’의 눈길에 잠실로 쏠린다. 17일 KBO 플레이오프 1차전이 잠실구장에서 열린다. 한국시리즈에서 맞붙게 될 상대가 ‘곰’과 ‘공룡’으로 압축되면서 결전의 무대를 앞둔 ‘호랑이 군단’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KIA는 지난 14일 자체 흥행전을 시작으로 한국시리즈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최고의 컨디션으로 한국시리즈를 맞이하기 위해 치밀하고, 착실하게 선수들의 준비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그라운드 밖에서도 ‘V11’을 위한 만반의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지피지기 백전백승’을 외치며, 적지에서 상대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는 눈이 있다.

“5차전까지 다 보고 내려오는 게 목표”라면서 호탕하게 웃은 김상훈 퓨처스 배터리 코치. 그가 ‘매의 눈’이 되어 한국시리즈 우승을 위한 또 다른 선수로 뛰고 있다.

KIA는 롯데 자이언츠와 NC 다이노스의 준플레이오프 현장에서 전력분석팀과 함께 김상훈 퓨처스 배터리 코치와 김민우 퓨처스 수비코치를 배치했다. 선수와 코치로서의 경험을 살려 세밀하게 상대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특히 김상훈 코치는 2009년 주장이자 안방마님으로 V10을 이끌었던 우승의 주역이다. 이번에는 그라운드 밖에서 우승을 준비하고 있다.

“올 시즌 우리 선수들 정말 고생했다.

KIA, 두산-NC 오늘 PO 1차전 앞두고 긴장감 고조
올 시즌 유일 두산에 7승8패1무 열세...NC전 9승7패



마지막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힘든 일을 해냈다. 1위 확정하고 나서 선수들을 만나 포옹하고 격려도 했는데, 내가 선수로 우승을 했을 때와는 다른 기분이었다. 표현하기 어려운데 기특하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하고 남다른 감정이 들었다”며 정규시즌

우승에 대해 말한 김상훈 코치는 “지난 한국시리즈에서는 선수로 뛰었는데 이번에는 다른 역할을 맡았다. 부담도 되고 열심히 해야 한다는 마음이다”고 한국시리즈를 준비하는 마음을 이야기했다. 준플레이오프 5차전을 꼼꼼하게 지켜

본 김상훈 코치는 이제 플레이오프 현장으로 가서 레이더를 가동하게 된다.

느긋하게 상대를 기다리고 있던 두산은 2년 연속 삼패인을 터트린 ‘디펜딩 챔피언’이다.

탄탄한 야수진이 버티고 있어 공·수에서 빈틈이 없는 강적이다. 올 시즌 상대전적에서도 1위 KIA는 유일하게 두산에만 열세(7승 1무 8패)를 기록했다. 여기에 NC가 준플레이오프에서 5차전까지 가는 접전을 벌인 만큼 체력적인 면에서도 두산이 앞선다.

NC와의 올 시즌 상대전적에서는 KIA가 9승 7패로 우위를 점했지만, 최근 3년간 상대전적으로 따지면 21승 27패로 뒤진다. 전반기에는 1위 자리를 놓고 팽팽한 힘겨루기를 하면서 결정적인 순간 스윙패와 스윙승을 주고받기도 했다.

어느 상대를 만나더라도 쉽지 않은 여정이 될 전망이다. KIA에게 최상의 시나리오를 치열한 접전 속에 두 팀이 5차전까지 승부를 겨루는 것이다.

김 코치도 “15일 경기는 비도 오고 많이 추웠다. 추위에 대비해서 옷은 잘 챙겼다. 몸은 힘들어도 되니까 마지막 5차전까지 지켜보고 오고 싶다(웃음)”며 “경기도 경기지만 양 팀 덕아웃과 선수들을 꼼꼼하게 살피면서 분위기도 파악하겠다. 작은 부분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다. 한국 시리즈 우승에 도움이 될 부분을 찾아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터너 9회말 끝내기 홈런...LA 2연승

시카고 컵스에 4-1 승

로스앤젤레스 다저스가 시카고 컵스에 2연승을 거두고 월드시리즈 진출의 8부 능선을 넘었다.

다저스는 16일 열린 2017 메이저리그 포스트시즌 내셔널리그 챔피언십시리즈(NLCS·7전 4승제) 2차전에서 저스틴 터너의 9회 말 끝내기 스리런 홈런에 힘입어 컵스에 4-1로 승리했다.

다저스는 1-1의 팽팽한 균형이 이어진 9회 말 선두타자 야시엘 푸이그가 브라이언 던싱을 상대로 스트레이트 볼넷을 얻어내며 끝내기 기회를 잡았다.

보내기 번트로 푸이그를 2루에 보낸 다저스는 대타 카일 파머가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났으나 크리스 테일러가 바뀐 투수 존 래키와 폴카운트 승부 끝에 볼넷을 골라냈다.

래키가 테일러와 승부하지 못한 것이 결국 컵스에는 치명타가 됐다. 타석에 들어선 터너는 1볼에서 래키의 2구째 시속 92마일(약 시속 148km)짜리 포심 패스트볼이 한가운데 물리자 이를 놓치지 않고 통타해 가운데 담장을 넘기고 경기를 끝냈다. 다저스는 안방에서 열린 챔피언십시리즈 첫 두 경기를 모두 쓸어들고 월드시리즈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연합뉴스

박세리 내년 골프 국가대항전 명예조직위원장 위촉

한국 여자골프의 ‘전설’ 박세리(40·사진)가 처음으로 국내에서 열리는 여자골프 국가대항전 ‘UL 인터내셔널 크라운’의 명예 조직위원장으로 대회 성공에 힘을 보탠다.

박세리는 16일 인천 송도의 잭 니클라우스 골프클럽 코리아에서 열린 대회 기자회견에서 명예 조직위원장으로 위촉됐다.

인터내셔널 크라운은 2년마다 8개국 여자 선수들이 벌이는 국가대항전으로, 내년 세 번째 대회가 10월 4~7일 잭 니클라우스 골프클럽에서 열린다.

선수들의 세계랭킹을 토대로 참가국과 선수가 정해져 여자골프 최고 스타들이 국가를 대표해 샷 대결을 펼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대회다. 이 대회가 미국 아닌 국가에서 열리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명예 조직위원장으로 위촉된 박세리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현재 한국 선수들이 대거 활약하는 데

발판을 놓은 개척자다. 국내 무대를 평정하고 1998년 LPGA 투어에 데뷔해 그해 메이저 대회 LPGA 챔피언십과 US여자오픈을 제패하고 신인상을 받았다. 이를 시작으로 메이저대회 5승을 포함해 LPGA 투어에서 통산 25승을 거둬 한국 선수 최초로 LPGA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리우 올림픽 때는 한국 여자 대표팀의 감독으로 팀을 이끌기도 했다. 위촉장을 받은 박세리는 “명예로운 자리를 주셔서 감사하고, 대한민국 골프의 기량이 높아지면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다는 걸 새삼 느낀다”며 “한국뿐만 아니라 골프 전체에 힘이 되도록 기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연합뉴스

전남 첫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오늘 해남서 개막

전남 최초로 장애인생활체육인을 위한 체육대회가 해남에서 개최된다.

전남장애인체육회(상임부회장 정성만)는 17일과 18일 제1회 전라남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를 해남에서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전남 최초로 열리는 장애인생활체육인들을 위한 공식적인 대회로 게이트볼, 좌식배구, 배드민턴, 탁구, 줄다리기 등 6개 종목에 22개 시·군 선수 및 임원 1300여명이 참가해 열린 경쟁을 벌일 계획이다.

특히 디스크골프, 커볼링, 후쿠볼 등 장애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뉴스포츠

종목 체험존을 운영하는 등 경쟁이 아닌 함께 즐기고 어울리는 축제의 한마당이 펼쳐진다.

제25회 전남장애인체전 개최지에서 연이어 치러지는 이번 생활체육대회는 장애인간의 사색을 활용해 알차고 내실 있는 대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만 상임부회장은 “해남군 일원에서 처음 열리는 대회인 만큼 개최지인 해남군, 종목별 경기단체들과 협심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도민 참여형 대회가 되도록 충실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3년 연속 가을 무대 격돌 두산-NC 사령탑 출사포

자만 경제 vs 새로운 판

두산 김태형 감독 “상대전적 우세지만 변수는 있는 것”
NC 김경문 감독 “4연속 가을야구 치르며 차분해져”

답에 감사하다. 3년 연속 두산과 포스트시즌에서 만나 기쁘다”고 화답한 뒤 “지난 해에는 허망하게 시리즈를 끝냈다(4전 전패). 올해는 두산의 파트너로서 좋은 경기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지난 2년간의 가을 무대, 올해 정규시즌 맞대결 성적이 모두 두산이 우위(11승 5패)에 있다. 하지만 두산은 자만을 경계했고, NC는 ‘새로운 판’을 예고했다.

김태형 감독은 “상대전적은 우리가 우

세했지만, 포스트시즌에서는 언제나 변수가 있다”고 말했다. 김경문 감독은 “우리 선수들이 4년 연속 포스트시즌을 치른다. 올해 가을에는 확실하게 차분해졌다”고 응수했다.

선수들은 조금 더 과감했다. 두산 유희관은 “나를 제외한 모든 두산 선수들이 NC가 올라오길 기대했다. 선수들의 자신감이 넘쳐서 활기차게 출발할 수 있다”고 선전포고를 했다. NC의 모창민

과 임창민은 “두산의 전력상 우위는 인정하지만, 우리 팀 분위기가 좋다. 마지막에 웃겠다”고 받아들였다.

두산은 주력과 정확한 타격을 자랑하는 박민우를, NC는 ‘빅게임 피쳐’ 더스틴 니퍼트를 가장 경계했다. 이번 플레이오프 화두도 NC의 기동력과 두산의 선발 투수의 힘으로 모이고 있다.

17일 잠실구장에서 개막하는 플레이오프(5전3승제) 1차전 선발은 니퍼트(36·두산)와 장현식(22·NC)이다. 두 투수의 나이는 14살이다. 경력에도 차이가 크다.

2011년부터 올해까지 7시즌을 두산에서 뛴 니퍼트는 가을 무대 이력도 화려하다. 니퍼트는 지난해까지 포스트시즌 14경기에 등판해 4승 1패 1세이브 평균자책점 2.53으로 호투한 ‘빅게임 피쳐’다.

장현식은 4시즌째(군 복무 시절 제외)인 올해, NC의 차세대 에이스 자리를 예약했다. 지난 롯데와 준플레이오프 2차전에서 7이닝 3피안타 무실점으로 역투했다. /연합뉴스